

지방자치·종합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민 형 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고 복지는 일자리… 사회적 기업 지원”

광산구의 임진년 화두는 ‘참여’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8일 “광산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참여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그리는 ‘참여도시’는 무엇까? 민구청장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지역을 경영하고,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주민참여는 행정을 비롯해 문화, 교육, 지역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된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문화센터를 만들어 육아, 창업 교육 등을 함께 꾸리고, 동네별 작은 도서관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광산구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해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채택된 주민들의 공익적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한 해법도 ‘참여’로 마련할 예정이다.

민 구청장은 “구청과 교육청 민간단체,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등 교육 현장의 여러 현안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고 조례로 제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폐교를 ‘시민예술가 창작학교’로 활용하고, 오랜 경륜을 통해 쌓아온 지식이 다른 사람들 위해 쓰여지는 유동 창구도 만들겠다”고도



금형산업 인력 양성과정 운영

‘시민예술가 학교’ 폐교 활용

‘주민 정책 참여 조례’ 만들어

했다.

민 구청장은 “궁극적으로 정책의 수립부터 감사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는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주민참여 조례가 제정된 광주지역 자치구는 없다.

민 구청장이 ‘참여’와 함께 구정의 주요한 축으로 설정한 분야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주민이 자신의 권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6월 출범한 민·관 복지 연대망 ‘투게더 광산’의 역량이 더욱 강해지도록 뒷받침할 계

획이다. 복지사업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 복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 구청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점을 굳게 인식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일자리 정책은 ▲공익적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익적 일자리’는 1년 전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단행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산구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민간기업의 구 발주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민간 영역의 정규직화 정책을 이끌 계획이다. 또 시민·종교단체와 기업, 관공서가 함께하는 가칭 ‘비정규직 고용안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텔레마케터와 금형산업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진곡·하남산단에 들어설 광주의 전략산업의 요구에 들어맞는 인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산구는 특산물 등 지역특성과 마을 커뮤니티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이건철 전발연 연구위원

광주와 함께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잇는 ‘광주권 도시외곽순환도로(제3순환도로)’변에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현철 책임연구위원, 나주몽 전남대 교수 등과 함께 발간한 ‘제3순환도로변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방안’이라는 주제의 간행물 리전인포에서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쾌

적함과 전원의 한적함을 누릴 수 있는 전원형 주거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광주권 외곽순환도로변의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공동혁신도시 외에도 해양관광개발 촉진, 귀농인구 증가 등으로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광주시가 광역도시계획에 나주·담양·화순·장성을 생산과 관광, 전원 주거지역으로 특화해 개발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단지 건설의 필요성은 충분

하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 등의 주장이다.

연구팀은 또 광주권 외곽순환도로망이 구축되면 광주로의 출·퇴근도 한결 편해지는데다, 주변 시·군과의 교통망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특히 효율적인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혁신도시 주변 지역이나 담양 대덕면에 도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형 주택단지나 한옥형 주거단지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화순의 경우 지역 천연자원과 골프장, 온천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원 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철 선임연구위원은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말 타는 김정은

조선중앙TV는 8일 방영된 기록영화를 통해 말을 타고 있는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을 방영했다.

/연합뉴스

‘마을기업’사업 확대
道, 20~30곳 추가

전남도는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향토·문화·자연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마을단위 지역주민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34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최근 2년간 351명의 일자리 창출과 8억 9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남도는 올해도 20~30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은 최장 2년까지 총 8000만원(1차년도 5000만원·2차년도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지속적인 마케팅 교육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 최소 5인이 참여해 법인·조합 등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마을 주민이 출자해야 하며 마을회, 부녀회 등 소규모 지역공동체는 사업비를 교부받기 전에 법인으로 등록해야 참여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법원장 2년 임기후 ‘평생법관제’ 도입

인사제도개선위 오늘 의결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마친 후에도 일선 재판업무에 보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 정기인사 때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그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와 법원장을 마친 후에는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순환보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풀풀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검사지휘 배제’

형소법 개정 발의 추진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8일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 측 입장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간을 마련해 여야 의원과 조율한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광주 동구에 지식산업센터 짓는다

옛 과학관 부지에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238억 들여 내년 완공

도심 공동화에 허덕이는 광주 동구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

광주 동구는 7일 “동명동 옛 과학관 부지에 238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광주지식산업센터

가 건립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건립 예산 가운데 국비 60억원을 확보,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구는 센터가 건립되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인쇄업, 의류업, 정보통신산업 등 소규모 업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센터에는 50여개 업체가 들어서고 500여개 일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구는 센터가 2014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점을 활용해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청진동국밥

신안동 신안사거리 신정형외과옆
개운하고 시원한 국밥전문점
☎(062)522-5958

말바우한의원

두암동 841-5 말바우소방소앞
요통,아깨통증,슬통등 각종통증치료전문
원장 이용식
☎(062)262-5275

뉴런월드호남본부

충장로5가 10-3번지 도매상가거리
국내최초 TV문제 직장 영어,중국어,우리말을 애니메이션화
수리 영재 프로그램 동영상
☎(010)3920-7589

SK국제,국내결혼정보회사

우산동 554-37번지 서방시장건너
국내,외 결혼전문
대표 유병숙
☎(062)941-2204

다사랑의료기

학동 750-70번지 삼익세라믹@입구
의료기 전문업체
회장 박동구
☎(011)607-9026

천지당구장

암림동 기독교병원입구 2층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대표 임성채
☎(010)4144-6088

뽕 돈

백운동 현대@건너 목우@상가
국내산 돼지고기 전문점
대표 김종필
☎(062)367-0281

한방대나무숙성유황오리

우산동 554-19번지 서방시장건너 새마을금고골목
조기탕, 청국장, 추어탕전문
대표 서유경
☎(062)522-8883

화담회관

두암동 556-7번지 광주병원앞
갈비, 감자탕 전문
대표 지연화
☎(062)263-6622

대구형제막창

백운동 1-5번지(휴먼시아3차 대성시장입구)
소막창, 돼지막창, 돼지갈비, 오돌뼈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62)651-9293

손큰회포차

서구 쌍촌동 1199-7번지 쌍촌4역
산낙지회, 메기탕, 방어조림
<점심메뉴-동태탕> 회 포장 됩니다.
대표 문정매
☎(010)2809-5673

유니베라남양알로에복구대리점

북구 우산동 말바우사거리 동진빌딩 301호
건강식품, 화장품
☎(062)268-7755

원명원

금남로2가 구)동구청 1층
중화요리전문
광주에서 처음 출시한 요리
☎(062)232-1422

포인트추나요법

봉선동 1036-6번지 모이2차@사거리
운동처방, 목,허리,아깨,다리 관리
(월~일, 주 4건)
☎(062)651-9030

커피홀릭

동구 충장로3가 11(이포유정문 건너편2층)
직접 볶아 신선한 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종로검정고시학원

대의동 71-4 전일빌딩뒤 문화전당바로옆
성년한글반, 오전·오후·야간반
검정고시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원장 이재운
☎(062)226-2227

무진보

동구 금남로2가 7-3 카톨릭센터뒷편
오리요리명가 단체손님예약환영
대표 이명옥
☎(062)523-5292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 거리
기념품전문 판매점
대표 서대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매매,무로감정,고급표구족자판매점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순살파닭(광주2호점)

학동 남광주 사거리에서 학문외과 옆
배달전문
☎(062)225-3992

터숫불구이(양림점)

암림동 기독교병원뒤 서양새마을금고옆
숯불구이, 국밥전문
대표 전인태
☎(010)7941-2277